SEOUL ECONOMIC MONITORING

카드매출 빅테이터를 통해 본

서울 소비경기지수

2022. May

05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인포그래픽

서울 소비경기지수
2022. 05월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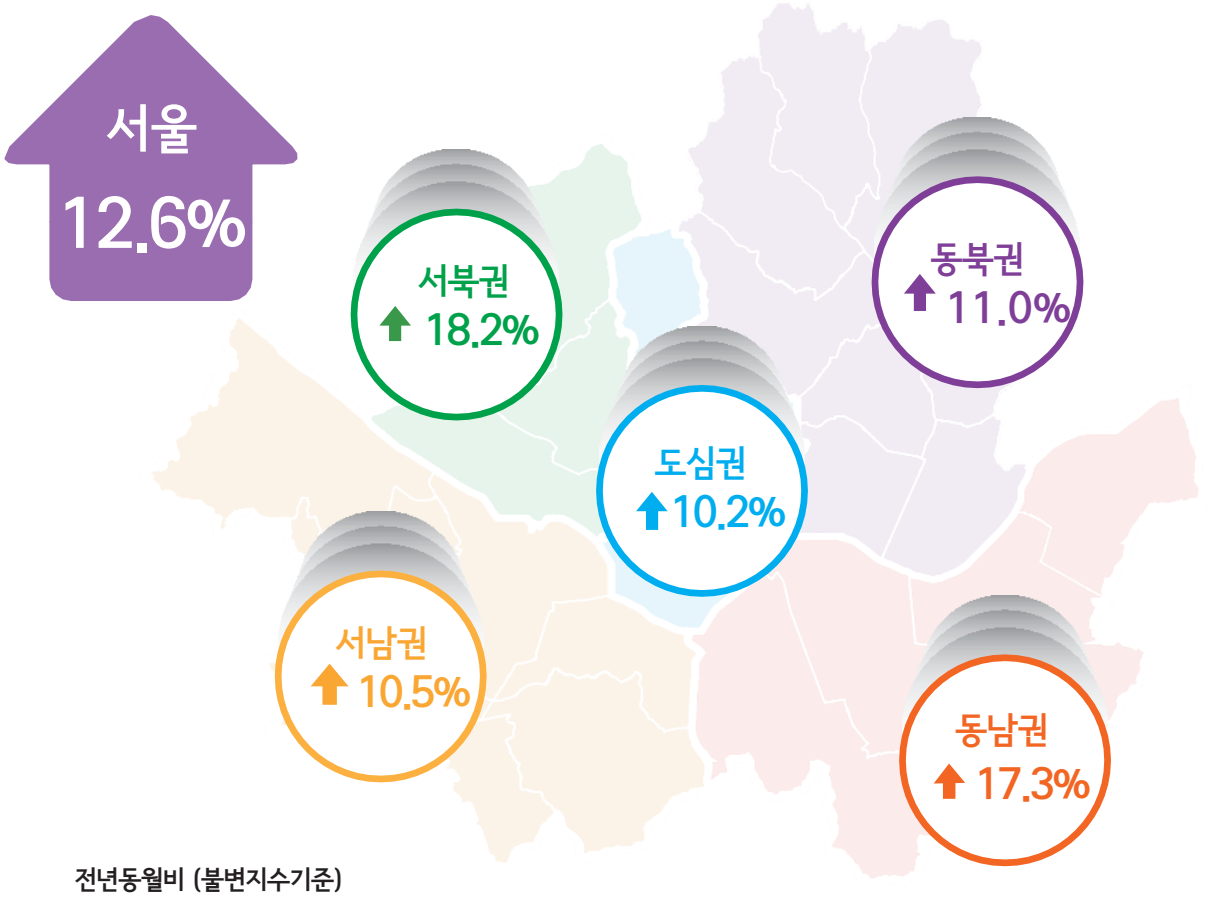
22년 05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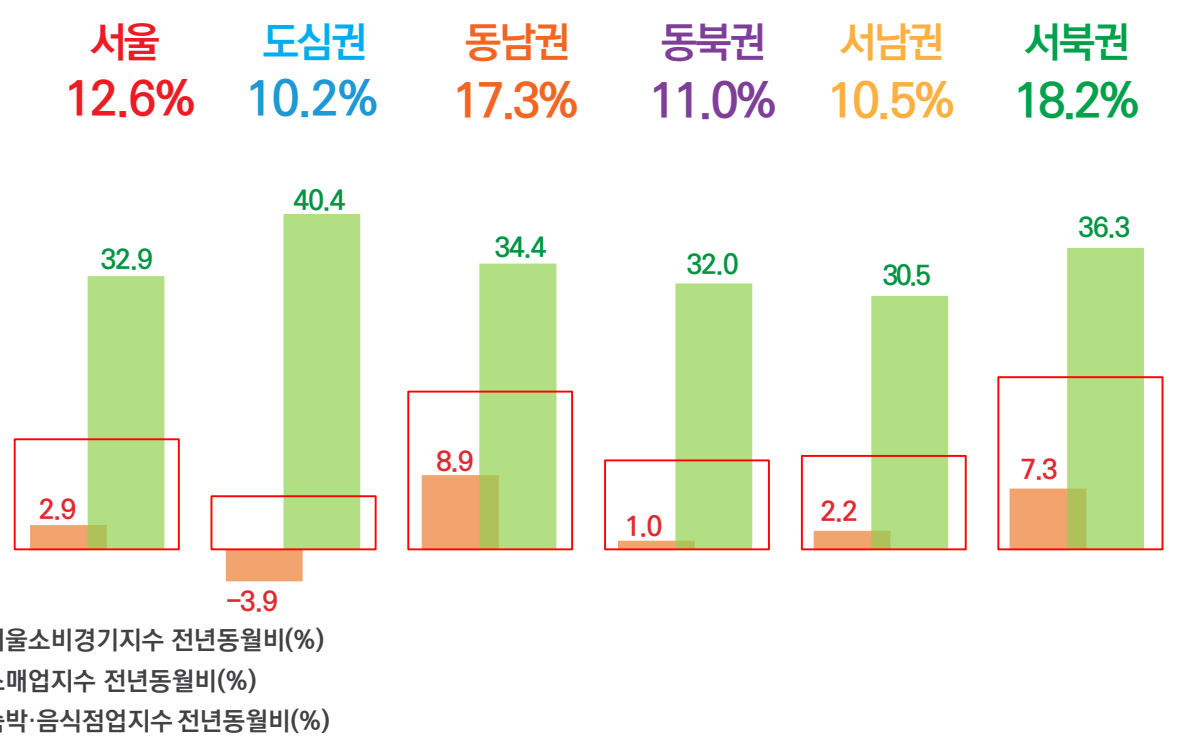
(불변지수)

4월에 이어 소매업이 소폭 상승, 숙박·음식점업 오름폭은 크게 상승하면서

서울소비경기는 전 권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전년동월비 (불변지수기준)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 · 조정 · 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있음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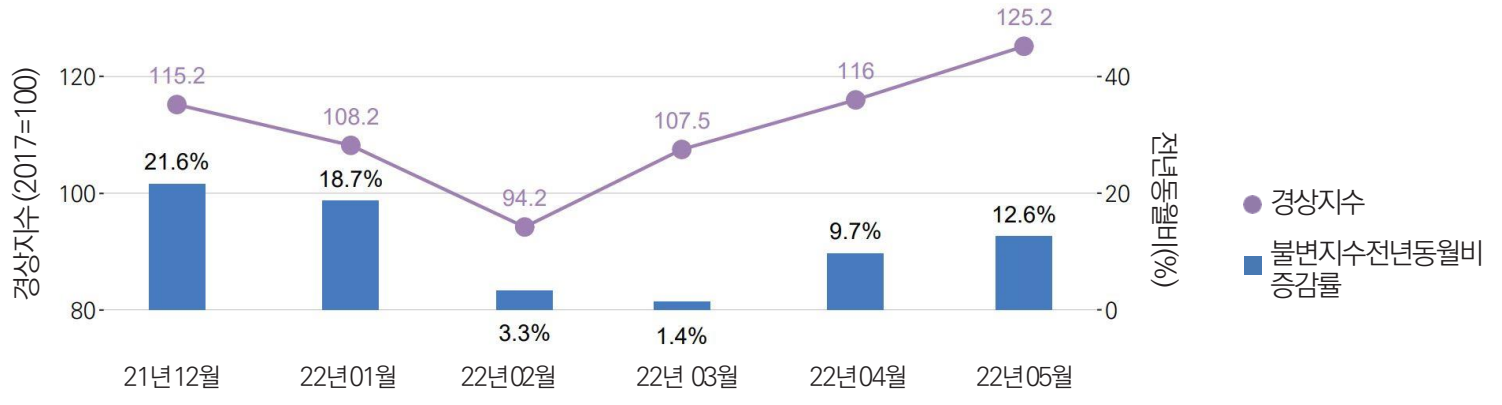
서울 12.6% (125.2) 	•2022년 5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125.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상승,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9개월 연속 이어짐. 서울은 물가 상승 가속 및 대외경기 불안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여파로 5월의 서울의 소비경기지수 오름폭이 (전월보다) 소폭 확대 -가전제품·정보통신, 기타가정용품 등 소매업 세부 업종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문화·오락·여가, 의복·섬유·신발 등이 상승세를 유지하였음에도 소매업 오름폭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서울의 주점·커피전문점, 숙박, 음식점 등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오름폭이 (전월보다) 확대
권역종합 	•5월 서울의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서울을 비롯한 전권역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며 오름폭이 (전월보다) 소폭 확대되면서 상승세를 지속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 소매업 오름폭의 소폭 감소와 함께 숙박·음식점업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며 권역별 소비경기지수 오름폭 (전월보다) 확대 -도심권 : 소매업의 감소폭이 줄어들고, 숙박·음식점업 오름폭이 크게 상승하며 도심권 소비경기지수 상승
도심권 10.2% (130.7) 	•(전년동월대비) 소매업이 3.9% 하락했으나, 숙박·음식점업이 40.4% 상승하면서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10.2% 증가. 전 권역 중 소매업이 유일하게 4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전월 하락했던 세부 업종 대부분이 하락폭을 유지하면서 문화·오락·여가 등의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도심권 소매업 하락. 특히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무점포소매업이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6개월 연속으로 하락 •도심권은 숙박·음식점업이 상승하며 오름폭은 (전월보다) 크게 확대.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모든 세부 업종이 상승세 유지
동남권 17.3% (129.1)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8.9% 상승과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의 34.4% 상승으로 동남권 소비경기지수도 17.3% 상승 •동남권은 일부 업종의 하락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의복·섬유·신발 등이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소매업 오름폭이 (전월보다) 소폭 증가. • 동남권 숙박·음식점업도 주점·커피전문점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고 숙박, 음식점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름폭이 (전월보다) 확대
동북권 11.0% (116.0) 	•(전년동월대비) 소매업이 1.0% 상승하며 상승세 유지와 함께 숙박·음식점업이 32% 상승하면서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11.0% 상승. •동북권은 소매업 일부 세부 업종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연료, 기타가정용품 등 일부 업종이 감소하면서 소매업 오름폭은 전월수준을 유지 •동북권은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은 상승폭이 증가했으며, 숙박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숙박·음식점업 오름폭은 (전월보다) 증가
서남권 10.5% (124.7) 	•(전년동월대비) 소매업은 2.2% 소폭 상승하였으나 숙박·음식점업이 30.5% 상승하면서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도 10.5% 상승 •서남권 소매업은 세부 업종 대부분이 하락세를 유지한 가운데 기타상품과 무점포소매 등 일부 업종이 선전하면서 소매업 소폭 상승 •서남권은 숙박, 주점·커피전문점 등 일부 세부 업종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음식점이 상승세를 유지하며 숙박·음식점업 오름폭 (전월보다) 확대
서북권 18.2% (115.2)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7.3% 상승에 숙박·음식점업이 36.3%으로 대폭 상승하면서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18.2% 상승. 서울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줌 •서북권은 가전제품·정보통신 등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문화·오락·여가 등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며 일부 세부업종이 증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매업 오름폭이 (전월보다) 소폭 확대. •서북권 숙박·음식점업도 음식점과 주점·커피전문점 등의 세부 업종이 상승, 숙박의 오름폭이 둔화함에도 불구하고 오름폭은 (전월보다) 확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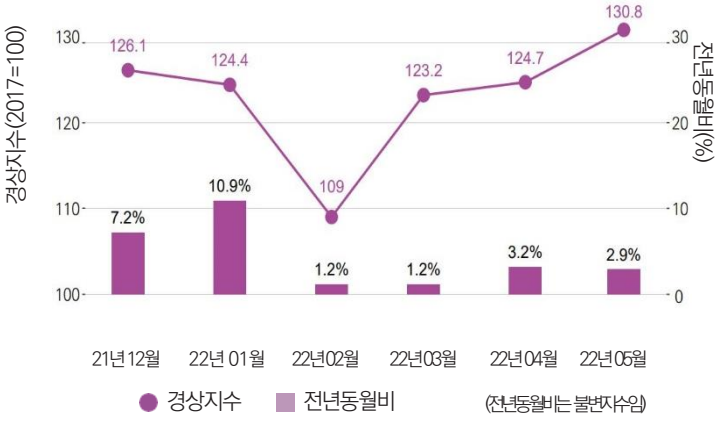
- **5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6% 상승.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
  - 전년동월대비 +12.6% = 소매업의 기여도 +2.0%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0.6%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 5월 서울 소비경기는 물가상승의 가속 및 대외경기 불안 등으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 2년 1개월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의 효과와 함께 전년동월 감소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오름폭이 (전월보다) 소폭 확대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2.9%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32.9% 상승**
  - 5월 서울의 소매업은 일부 업종이 감소세를 유지하며 오름세 둔화. 전월 하락했던 가전제품·정보통신(4월 -8.6%⇨5월 -19.9%), 기타 가정용품(4월 -11.0% ⇨ 5월 -11.0%) 등이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기타상품(12.8%), 무점포소매(9.4%), 의복·섬유·신발(6.4%), 음식료품(1.8%) 등의 오름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 오름폭 둔화
    · 5월 서울은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의복·섬유·신발, 문화·오락·여가,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가전제품·정보통신, 연료, 기타 가정용품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서울의 숙박·음식점업은 음식점(4월 14.3% ⇨ 5월 24.6%), 숙박(41.7%), 주점·커피전문점(65.5%) 등 세부 업종 모두가 상승세를 보이며 오름폭이 (전월보다) 확대. 9개월 연속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 상승세 유지
    · 5월 서울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 숙박,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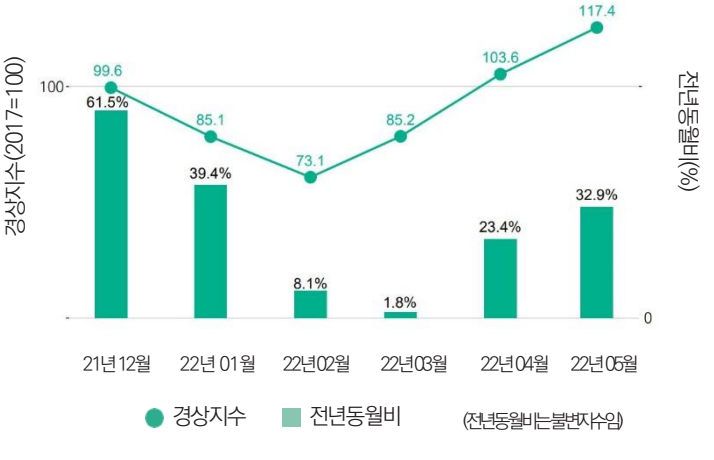
서울 소비경기지수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서울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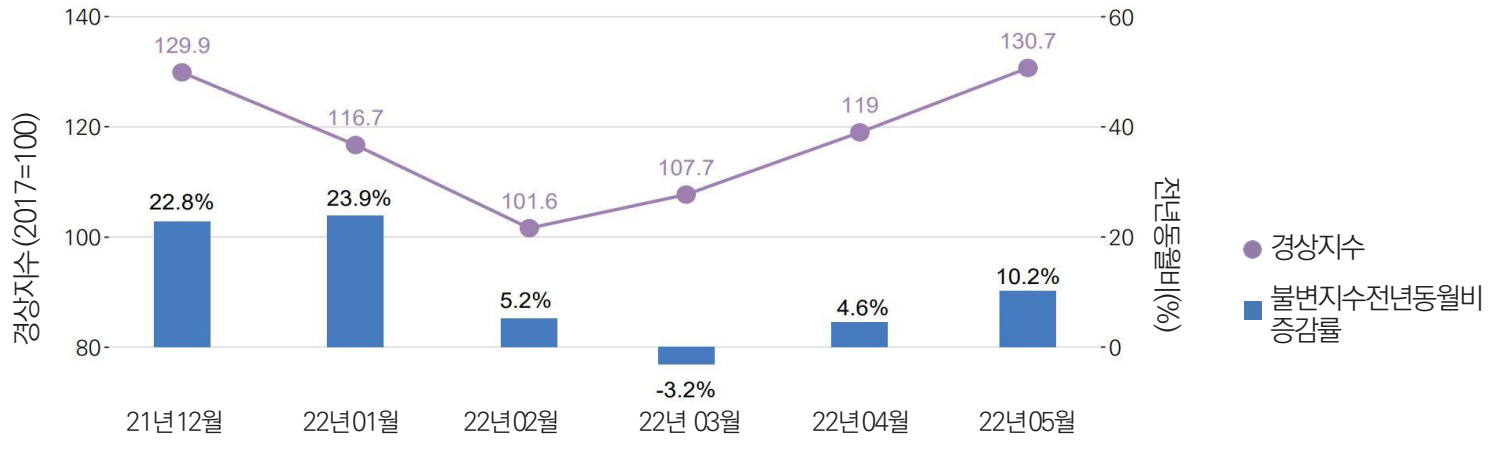


도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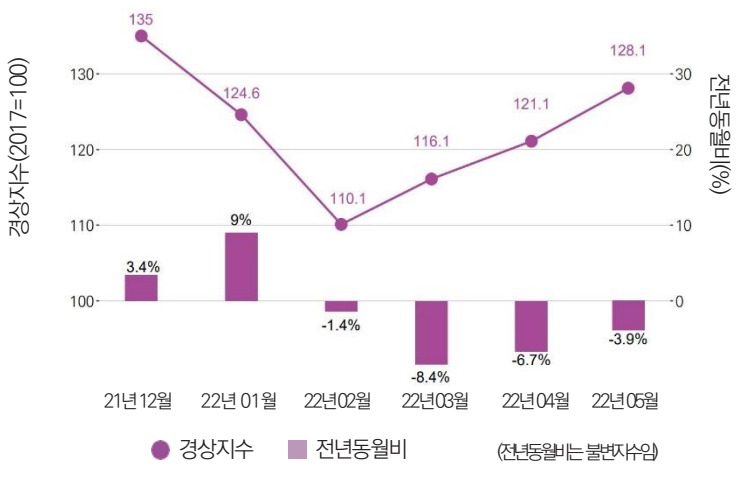
-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2% 상승.**
  - 전년동월대비 +10.2% = 소매업의 기여도 -2.6%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2.8%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부록의 기여도참조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3.9% 하락,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40.4% 상승.**
  - 도심권 소매업은 전월 하락했던 의복·섬유·신발(4월 - 35.9% ⇨ 5월 -31.1%), 연료(4월 -29.9% ⇨ 5월 -29.9%), 가전제품·정보통신(4월 -7.6% ⇨ 5월 -16.2%) 등의 하락세 유지와 문화·오락·여가(6.1%), 음식료품(4.1%), 종합소매(4.5%) 등의 증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 권역 중 유일하게 4개월 연속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하락세 지속. 특히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무점포소매(-9.9%)가 6개월 연속으로 하락
    - 5월 도심권 소매업은 기타가정용품, 기타상품, 문화·오락·여가, 종합소매업 등의 순으로 소비 증가
    - 반면 의복·섬유·신발, 연료,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도심권은 숙박·음식점업이 상승하였으며, 오름폭은 (전월보다) 크게 확대. 숙박업(63.7%), 음식점(4월 19.1%⇨ 5월 35.1%), 주점·커피전문점(4월 14.4% ⇨ 5월 23.7%) 등의 모든 업종이 높은 상승세 유지
    - 5월 도심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음식점, 주점·커피전문점 모두 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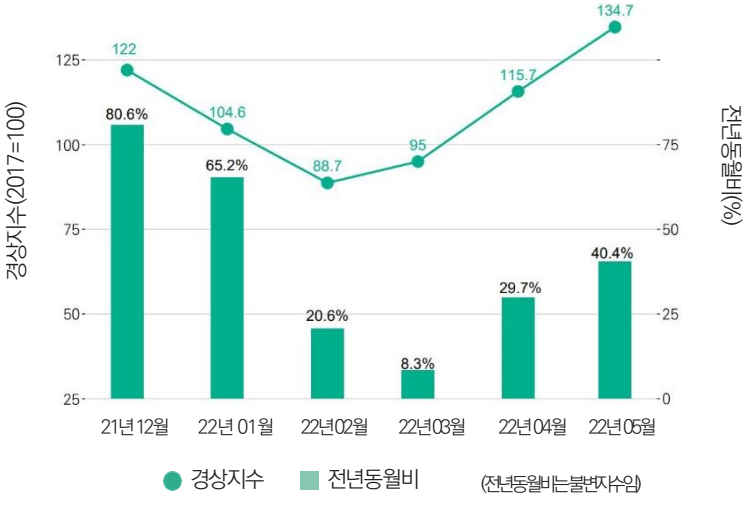
도심권 소비경기지수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도심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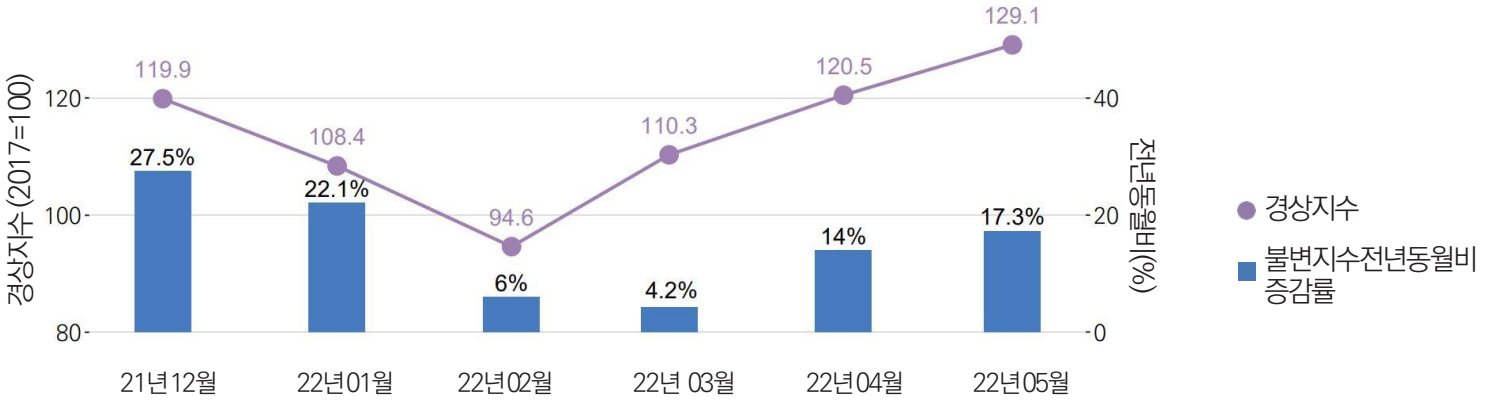


동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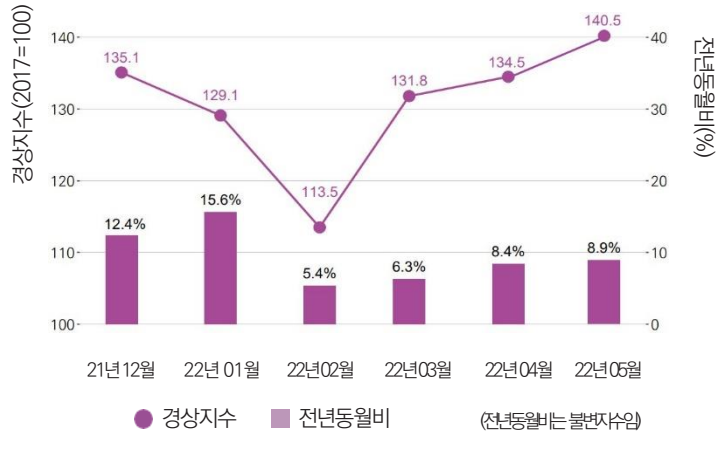
- **동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7.3% 상승**
  - 전년동월대비 +17.3% = 소매업의 기여도 +6.0%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1.3%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부록의 기여도참조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8.9%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34.4% 상승**
  - 동남권은 가전제품·정보통신(4월 -18.0% ⇨ 5월 -22.9%), 기타가정용품(4월 -31.0% ⇨ 5월 -33.7%) 등의 하락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의복·섬유·신발(4월 18.5% ⇨ 5월 13.9%), 무점포소매(4월 13.3% ⇨ 5월 16.8%), 기타상품(4월 15.3% ⇨ 5월 17.4%)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소매업 오름폭 (전월보다) 유지.
    · 5월 동남권 소매업은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 의복섬유신발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기타가정용품, 가전제품·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동남권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주점·커피전문점(152.9%)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고, 숙박(34.5%), 음식점(23.5%) 등이 상승세를 유지하며 오름폭이 (전월보다) 크게 확대
    · 5월 동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 숙박,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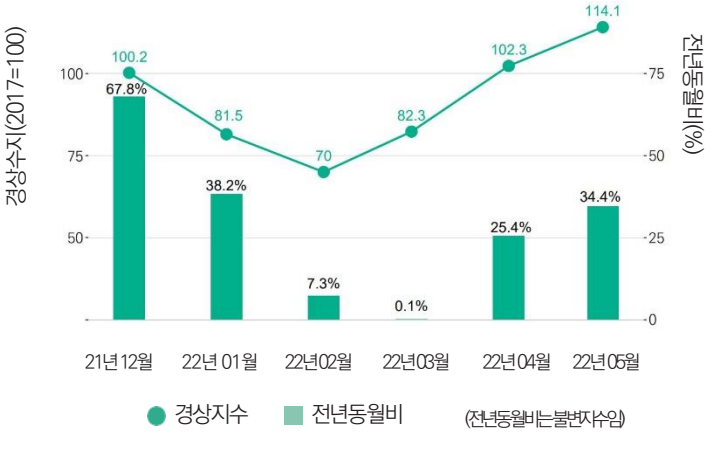
동남권 소비경기지수



동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동남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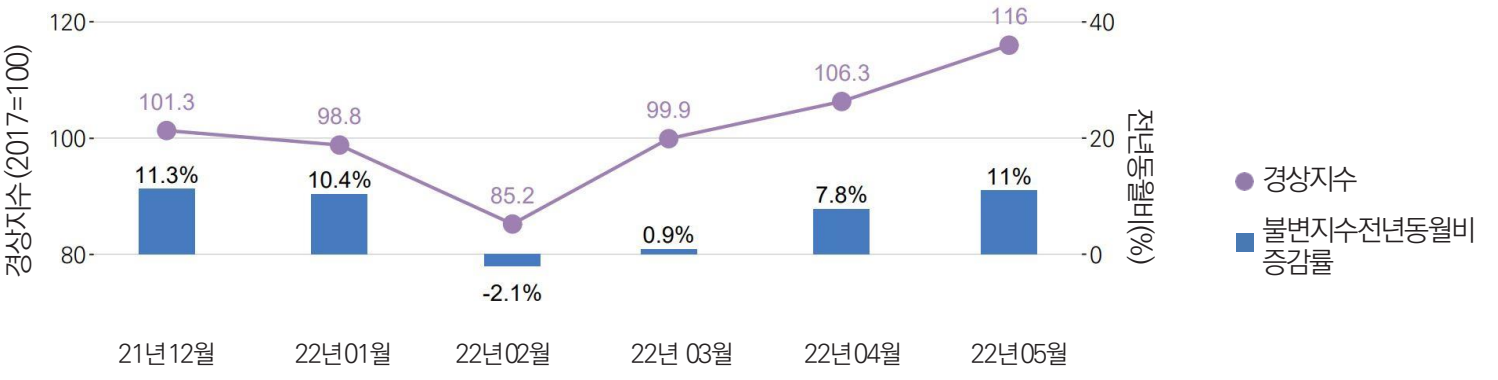


동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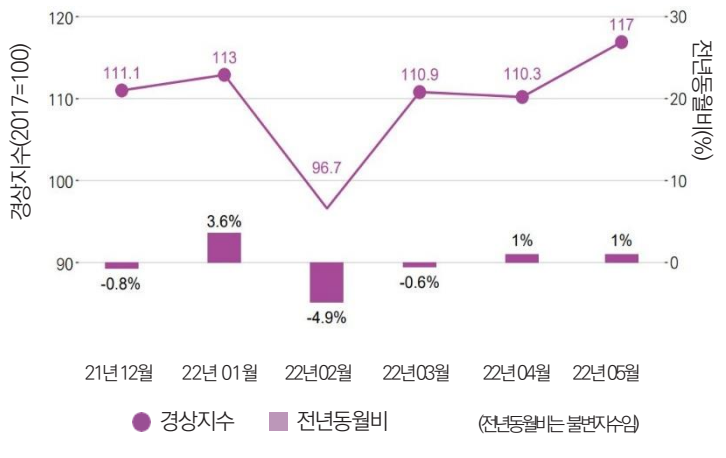
-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
  - 전년동월대비 11.0% = 소매업의 기여도 +0.7%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0.3%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부록의 기여도참조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1.0%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32.0% 상승**
  - 동북권은 의복·섬유·신발(19.7%), 무점포소매(10.5%), 기타상품(8.4%) 등이 증가하였으나 연료(4월 -29.2% ⇨ 5월 -17.3%), 기타가정용품(4월 -18.4% ⇨ 5월 -16.0%), 가전제품·정보통신(4월 -11.9% ⇨ 5월 -15.6%) 등 세부 업종의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오름폭이 (전월 대비) 유지.
    · 5월 동북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무점포소매, 기타상품, 문화·오락·여가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기타가정용품, 가전제품·정보통신,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동북권도 주점·커피전문점(85.3%), 음식점(22.3%)이 상승폭이 증가하고, 숙박(10.3%)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숙박·음식점업 오름폭은 (전월보다) 증가
    · 5월 동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숙박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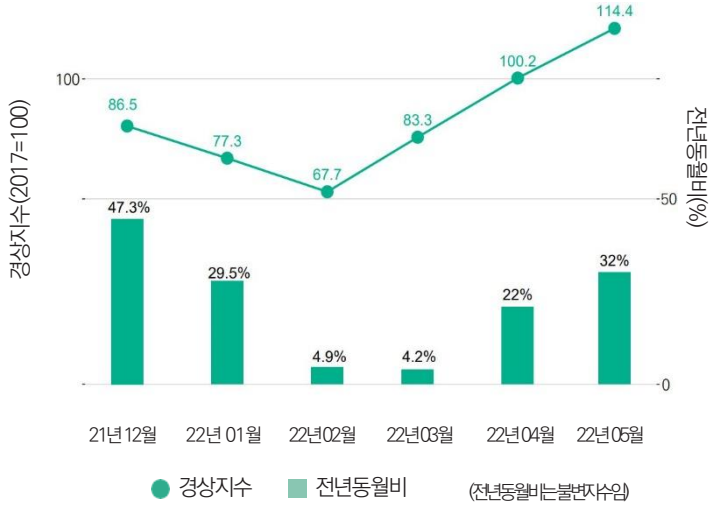
동북권 소비경기지수



동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동북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서남권

-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5% 상승**

  - 전년동월대비 +10.5% = 소매업의 기여도 +1.6%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9.0%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부록의기여도참조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2.2%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30.5% 상승**

  - 서남권 소매업은 가전제품·정보통신(4월 -8.6% ⇨ 5월 -20.8%), 종합소매(4월 -0.6% ⇨ 5월 -3.7%) 등의 하락폭이 증가하면서 의복·섬유·신발(4월 5.7% ⇨ 5월 10.5%), 무점포소매(14.3%)과 기타상품(7.2%) 등 일부 업종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 오름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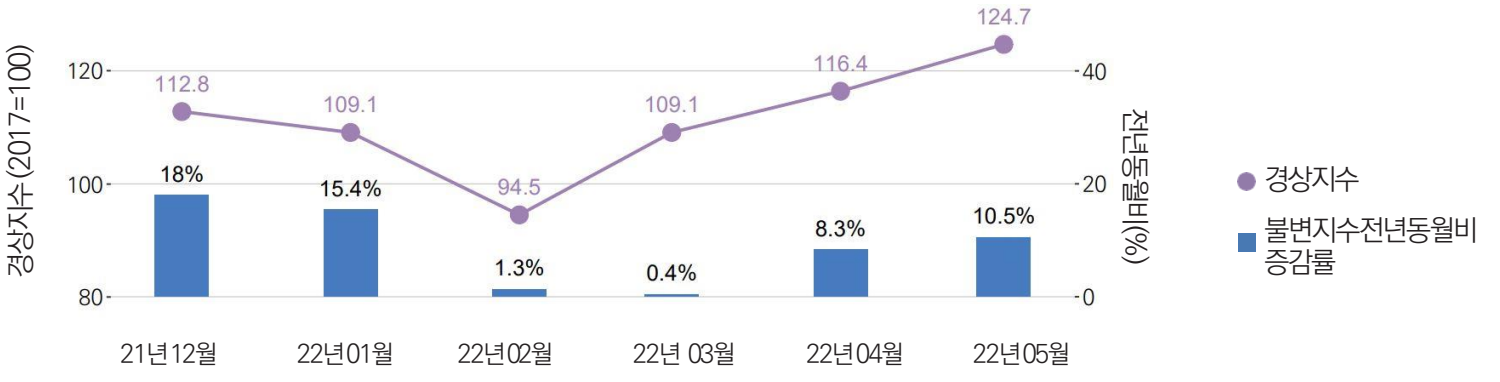
  · 5월 서남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 의복·섬유·신발, 기타상품,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가전제품·정보통신, 기타가정용품, 문화·오락·여가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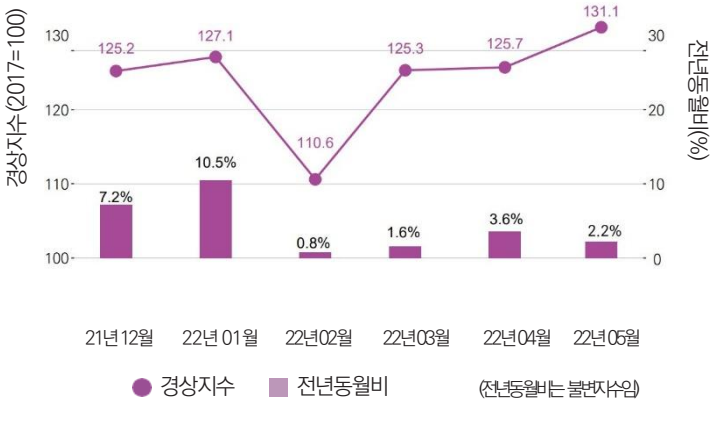
  - 서남권은 전년동월 부진을 지속하였던 주점·커피전문점(94.3%), 음식점(21.4), 숙박(18.9%) 등 세부 업종이 선전하며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전월보다) 오름폭 증가

  · 5월 서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숙박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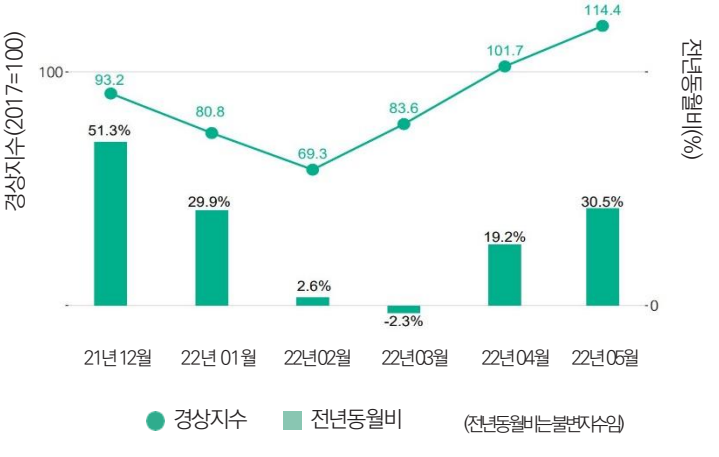
서남권 소비경기지수



서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서남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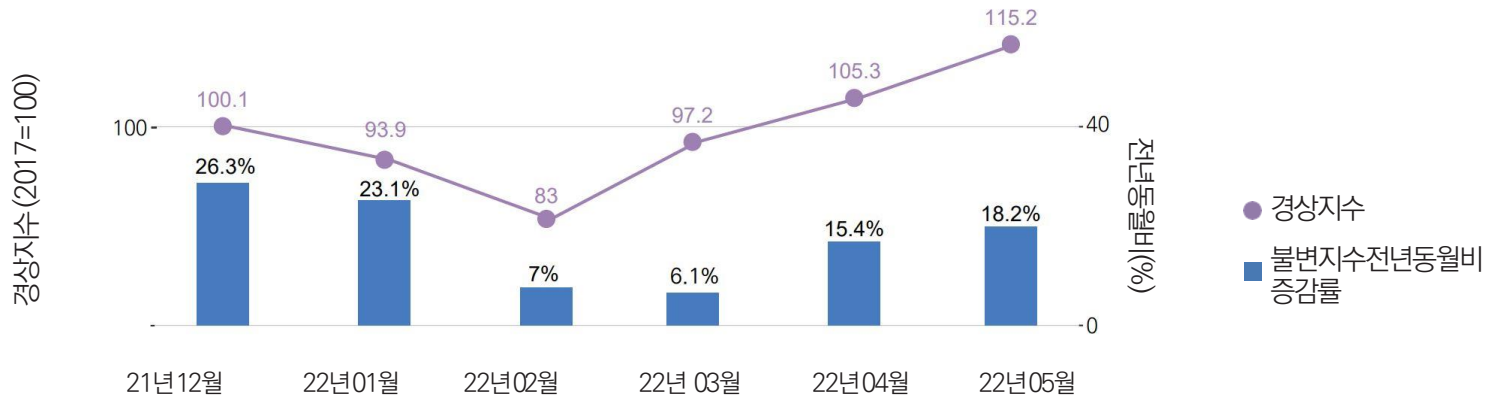


서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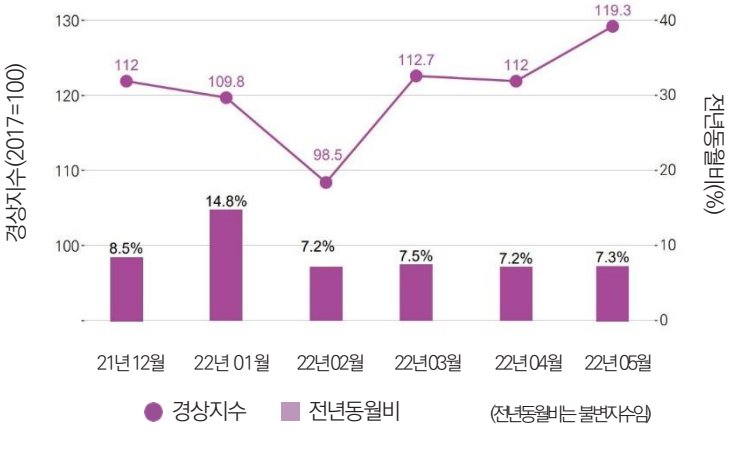
-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8.2% 상승.**
  - 전년동월대비 +18.2% = 소매업의 기여도 +4.6%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3.7%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부록의기여도참조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7.3%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36.3% 상승**
  - 서북권 소매업은 가전제품·정보통신(4월 13.8% ⇨ 5월 -11.2%), 종합소매(4월 0.7% ⇨ 5월 -2.3%) 등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연료(-26.7%), 기타 가정용품(-26.0%), 문화·오락·여가(-7.8%) 등 일부 세부 업종이 하락세를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기타상품(4월 12.4% ⇨ 5월 21.4%), 의복·섬유·신발(4월 13.3% ⇨ 5월 24.7%) 등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소매업 오름폭은 (전월보다) 소폭 확대.
    · 5월 서북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기타가정용품, 가전제품·정보통신, 문화·오락·여가,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서북권 숙박·음식점업도 주점·커피전문점(82.8%)과 숙박(38.6%) 등의 세부 업종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음식점(23.1%)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보다) 오름폭은 확대
    · 5월 서북권 숙박·음식점업도 주점·커피전문점, 숙박,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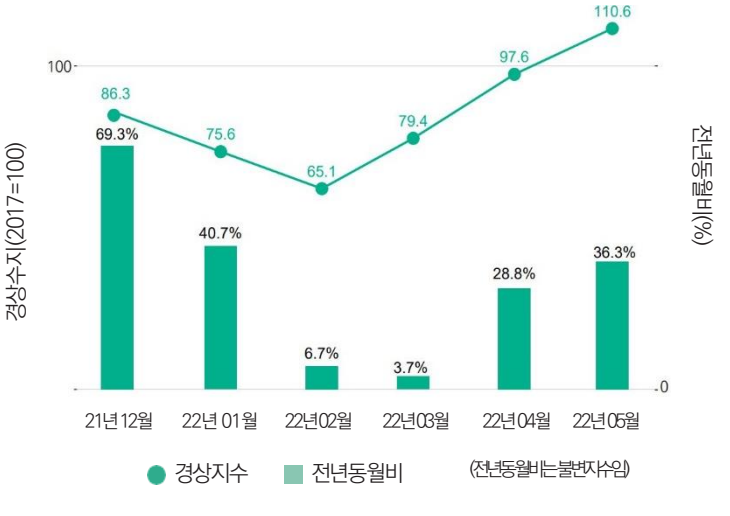
서북권 소비경기지수



서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서북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통계표

년도	월	서울소비경기지수											
		서울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2021년	12월	115.2	107.2	129.9	122.5	119.9	111.4	101.3	93.7	112.8	104.5	100.1	93.1
2022년	01월	108.2	99.8	116.7	109.1	108.4	99.8	98.8	90.4	109.1	100.2	93.9	86.7
	02월	94.2	87.3	101.6	95.3	94.6	87.4	85.2	78.5	94.5	87.2	83.0	76.9
	03월	107.5	98.6	107.7	100.2	110.3	101.0	99.9	91.0	109.1	99.6	97.2	89.3
	04월(p)	116.0	104.8	119.0	108.8	120.5	108.7	106.3	95.2	116.4	104.7	105.3	95.3
	05월(p)	125.2	112.4	130.7	118.8	129.1	115.7	116.0	103.2	124.7	111.4	115.2	103.6

p : 잠정치

기여도

[단위 : %p]

구분	서울소비 경기지수 (22.05월)	소매업 (22.05월)	종합소매	음식료품	가전제품 ·정보통신	의류· 섬유·신발	기타 가정용품	문화· 오락·여가	연료	기타상품	무점포 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22.04월)	숙박	음식점	주점· 커피전문
서울	12.6	2.9	0.2	0.1	△1.2	0.5	△0.2	0.0	△0.1	1.1	1.8	32.9	2.1	5.6	3.0
도심권	10.2	△3.9	1.0	0.1	△0.8	△2.2	0.6	0.1	△0.1	0.9	△2.2	40.4	5.1	6.5	1.2
동남권	17.3	8.9	1.2	0.0	△0.5	1.4	△1.1	0.1	0.1	1.4	3.5	34.4	2.3	5.6	3.3
동북권	11.0	1.0	△0.9	0.0	△1.1	0.9	△0.3	0.1	△0.3	0.9	1.4	32.0	0.2	5.5	4.6
서남권	10.5	2.2	△0.7	0.2	△1.8	0.6	△0.1	△0.1	△0.3	0.6	3.1	30.5	0.5	4.9	3.6
서북권	18.2	7.3	△0.3	0.0	△0.5	1.2	△0.5	△0.1	△0.2	3.0	2.0	36.3	1.0	6.3	6.4

주 기여도는 하위구성요소의 변동이 종합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지역별 하위구성요소의 기여도 합은 지역별 종합지수의 전년동월 증감율과 동일합니다.
주의, 기여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므로 하위구성요소의 합이 종합지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분류 및 지수체계

한국표분산업분류(KSIC)				카드매출 빅데이터
분류코드			분류명	가맹점 업종분류
서울소비경기지수	G. 소매업	471	종합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종합소매점 등
		472	음 · 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정육점, 청과물, 농수산물, 농가공산품 등
		473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가전용품,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등
		474	의복 및 섬유, 신발 소매업	남·여·기성복, 신발, 가방, 직물 등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가구, 인테리어, 악기 등
		476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운동 및 레저용품, 서적 및 문구, 완구 등
		477	연료 소매업	주유소, LPG가스, 가정용연료 등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약국, 화장품, 안경, 악세사리 등
		479	무점포 소매업	CATV상품판매, 전자상거래, 결제대행, 자동판매기, 방문판매 등
	I. 숙박 및 음식점업	551	숙박시설운영업	호텔, 콘도, 모텔, 여관 등
		561	음식점업	일반대중음식, 제과점, 패스트푸드 등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커피전문점, 주점 등

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카드 가맹점 업종사례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 개요

- **서울소비경기지수**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소비중심업종에 대하여 전체 또는 개별생산활동의 종합적인 파악을 위하여 업종별 부가가치를 가중치로 적용한 지수

- **데이터 :** 신한카드 카드매출 빅데이터
- **공간적 범위 :** 서울 및 5대 권역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마포

- **지수의 산식 :** 라스파이레스(기준시점고정가중평균)산식
- **서울 및 각 권역의 가중치**

  산업 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며, 해당 지역 산업별 기초가격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 각 권역의 지수는 해당 지역의 산업 가중치 합이 1로 산정된 독립적인 지수로 각 권역 증감률의 합이 서울전체의 증감률과 일치하지 않음 Σiwi =1, wi는 산업별 가중치를 의미 (기초가격 부가가치는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인건비 + 영업이익 + 감가 · 대손상각비 + 세금과공과임)

- **지수종류 :** 경상지수및불변지수

  - 경상지수 : 월별 매출액을 기준년도 매출액(2017년 평균)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불변지수 : 경상지수 ÷ 디플레이터 × 100 (디플레이터는 업종별 생산자물가지수 활용)

- **기여도**

  종합지수증감률 = Σi기여도i , 기여도i=(△하위지수i / △종합지수) × 종합지수증감률 , i는 각 산업을 의미

  하위지수(산업 각 부문)가 종합지수의 증감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줌

유의사항

-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이하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월간 소비지수이다.
-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소비는 서울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약 30%로 소비경기의 핵심 요소이다.
- 서울소비경기지수의 장점은 매월 1억건의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서울 세부지역의 소비경기까지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통계청의 ‘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벤치마킹하여 생산 측면의 매출액을 중심으로 지수가 구성되었으나, 분석대상인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소비밀착업종임을 고려하여 지수의 명칭을 소비경기지수로 명명한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통계청의 ‘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와는 지수의 공간 및 시간적 범위와 데이터 출처에 따른 표본이 서로 달라 두 지수의 방향 또는 증감율이 상이할 수 있다.
-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개인 및 법인이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소비를 서울지역에 소재한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집계한 것으로, 서울시민의 카드소비 뿐 아니라 서울외 지역 국민들이 서울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카드소비를 포함한다. 단, 무점포소매업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소비(지출)로만 집계 하였다.
-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서울 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전체 매출의 약 16%로 추정된다. 카드사의 점유율 및 카드사 용비율 변화에 따라 실제 매출액 대비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소지가 있으며, 카드 가맹점의 업종 변화 및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경상 및 불변지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불변지수의 전년동월비를 중심으로 작성 및 분석되며, 설명절, 연휴 등의 월간 이동과 영업일수 변동, 그 외 불규칙 요인에 의한 효과가 분석결과에 포함되므로 해석 및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조정·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다.